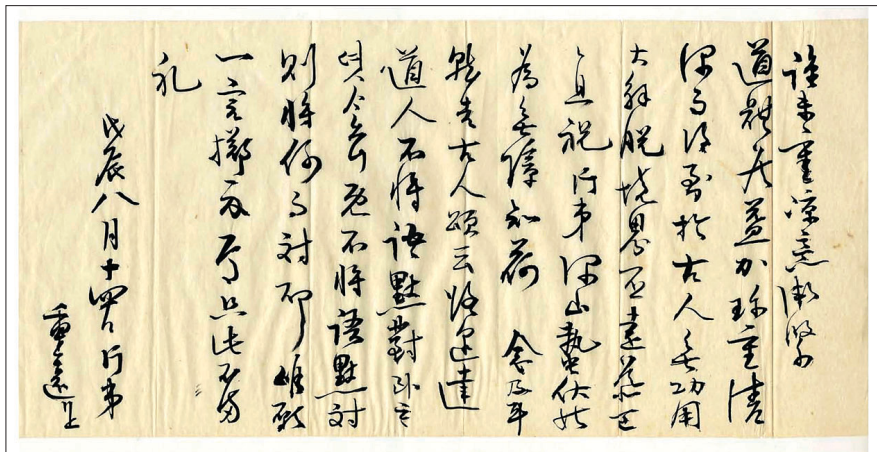




한암(漢岩) 선사(禪師)의 편지 (7)

말도 침묵도 안 된다면...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

삼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서늘해져 가는 이때에 도체(道體, 법체)가 더욱 평안, 청정(淸淨)하며, 그리고 고인(古人)들의 공용(功用) 없는 대혜탈 경계에 이르렀는지요. 멀리서 빌고 또 빌니다. 나는 깊은 산에 칩거하여 아무 장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염려해 주신 덕분인 줄입니다.

드린 말씀은 고인(古人)의 계승(繼承)에 "길에서 도(道)를 깨달은 사람을 만나면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하지 말라(路逢達道人, 不將語默對)."는 말이 있는데, 이미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오직 원컨대 한 마디 일러 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답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무진(1928년) 8월 14일
한암 중언(漢岩 重遠) 거듭 절하고 올립니다.

이 편지는 1928년 8월 14일에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이다. 짧은 서간인데, 그러나 서간이 되기보다는 전형적인 법거량(선문답)이다. 선어(禪語)에 "길에서 도인(道人)을 만났을 때(路逢達道人)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하지 말라(不將語默對)."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경봉 스님은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한 마디 말해 보라는 것이다.

자, 어떻게 상대하는 것이 옳을까?
달도인(達道人)이란 도를 깨달은 사람, 각자(覺者) 즉 깨달아서 부처가 된 사람이다. 그는 집착 없는 무심인(無心人)으로서 사랑 분별과 정식(情識, 감정이나 理性)이 다 사라진 사람이다. 석인(石人)이나 목계(木鷄), 목석(木石)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언어로도 통할 수 없고, 침묵으로도 통할 수 없다. 손짓 발짓도 안 된다. 그는 이성적인 사고나 감정, 감정 등 언어가 두절되어서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마음이 있지만 감성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자》에 보면 목계(木鷄) 이야기가 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닭이 있는데, 어느 날 나무로 만든 닭(木鷄)을 만나서 일전을 벌였다. 그런데 싸움을 잘 하는 닭은 결국 나무 닭에게 지고 말았다. 왜 졌을까? 아무리 발로 차고 덤벼들어도 목계는 무정, 무심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던 것이다. 싸움닭은 제풀에 나가떨어졌다.

‘노봉달도인, 불장애목대(路逢達道人, 不將語默對)’는 《무문관》 36칙(五祖法演的 路逢達道)에 나오는 공안이다. 《벽암록》 82칙에도 나오지만, 노봉달도인 공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봉의존의 문답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어떤 남자가 설봉선사에게 물었다. 고

‘노봉달도인, 불장애목대’

서신통해 경봉 스님과 법거량

인의 말에 길에서 도(道)를 깨달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말로도 상대하지도 말고 침묵으로도 상대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까? 설봉이 말했다. 자, 차나 한잔 마시게(問, 古人有言, 路逢達道人, 莫將語默對, 未審將什 對, 師云, 且喫茶去.)

도(道)를 깨달은 사람은 무심의 경지에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상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놔두고 차나 한잔 마시자는 것이다. 무심의 경지에서 차를 마시는 것, 그것이 무심의 경지에 있는 달도인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체 생각을 잊고 그대와 내가 차 한잔을 나누는 것, 그것이 상대적인 의식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인 의식이 없다면 달도인도 별 수가 없을 것이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휴식과 소통은 불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문화포교

‘내비뒤 콘서트’ 일감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경쟁이라는 사회흐름, 시대흐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저마다 안에서는 “나를 내버려 둬!” “내 방식대로 내 행복을 찾아갈 거야!” 하고 외치지만 어느새 경쟁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스스로 낙오자가 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한다. 각박한 세상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청량감으로 다가왔던 자리가 있다. 바로 금산사 ‘내비뒤 콘서트’다. ‘내비뒤 콘서트’는 산사에서의 휴식은 물론 일감(日監) 스님과 매번 다른 게스트들이 함께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로 대표적인 템플스테이로 꼽힌다.

‘내비뒤 콘서트’의 면면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다. 산사에서의 휴식이 여타 템플스테이와 다를바 없지만 콘서트에는 특유의 웃음과 울음이 있다. 일감 스님과 참가자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세상의 짐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일감, ‘내비뒤 콘서트’ 초기에 심수명(심수명)에 불과했던 콘서트 참여인원도 이제는 열릴 때마다 수십에서 기백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아니, 절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뭐 한다고 그래’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일감 스님의 말을 들어보면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휴식과 소통에 굶주려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의 성패를 떠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웃고, 또 쉬며 삶의 힘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가 할 수 있는 문화포교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포교 원력, 멕시코로 이어져

스님은 출가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하는 포교가 불교의 미래라고 생각했다. 1989년 이십대 중반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출가한 일감 스님은 성철 스님 상좌인 원웅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그 밑에서 수학했다. 출가 전에 본 성철 스님의 《자기를 바라봅시다》와 《선문정로》가 출가 계기였다.

문화포교에 대한 스님의 오랜 생각은 스님의 발길을 멕시코로 향하게 했다.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제방 선원에서 수행 정진하던 스님은 보리사 반야선원 주지로 3년간 멕시코에서 활동했다.



참가자들과 음악 치유하는 ‘내비뒤 콘서트’

“월드컵 끝나고 나서였으니 2002년 일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멕시코 불자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싶다고 해서 복장을 하러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포교당을 세우고 나니 돌아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법만이 아니었어요. 한인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고국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자리 만드는데 3년이 걸렸어요.”

스님은 반야선원을 한인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사물놀이반, 연극을 비롯해 인문학 강좌 등 문화활동

1989년 출가하며 ‘문화포교’ 서원
2002년 멕시코서 3년간 전법활동
해인사 음악법회 ‘화엄만다라’ 기획
금산사 수련원장 자리 옮겨 활동

휴식형 템플스테이 도입 높은 호응
인기 진행자, ‘내비뒤 콘서트’ 시작
자성과쇄신추진본부로 종단 소임
“종단 백년대계 수립 돕고파”

을 주축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한인 자녀들이 법당에서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 10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런 문화적 접근은 효과를 보았다. 한인 불자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한 것이었다. 스님은 이 힘을 바탕으로 멕시코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한인문화원을 세우기도 했다. 멕시코에서 스님은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했다.

2005년 귀국 한 스님은 해인사 포교국장을 맡아 첫 음악법회인 ‘화엄만다라’를 추진했다. 여기저기서 산사음



2005년 해인사 ‘화엄만다라’의 모습

악회가 열렸지만 정말 제대로 된 음악법회를 해보고 싶은 열망에서였다. 하지만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포함해 국보급 문화재만 70여 점이 있는 고찰. 무작정 대중에게 산문을 대거 개방하기란 쉽지 않았다.

“법회 형식을 따진 했지만 방향 스님 등 큰스님들이 유달리 많은 해인사로선 법당 바깥에서 예불을 결정하는 것부터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시 ‘템플스테이’도 함께 실시했는데 대중들이 잘 방이 모자라 승가대학 스님들의 거처인 관음전까지도 내주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화포교의 원력 아래 결국 화엄만다라는 2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해인사라는 무거워 보이는 그 이름에서 유쾌한 어울림 마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문화포교’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일감 스님의 복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산사에서 휴식형 템플스테이 도입

스님은 이후 2006년부터 금산사 수련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문화포교에 전념했다. 여기서 스님은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당시 자살문제가 크게 이슈화 됐을 때였습니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문제가 연일 기사에 나오고 했어요. 그때 생각했죠. ‘수련회 방식으로 불교전통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와는 다르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구요. 주변에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나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집에서도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어디가서 꼭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와서 쉬다 가세요’라는 의미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냥 편히 쉬어가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스님은 여기에 재미도 더했다. 스님 특유의 유머스러운 대화가 바로 그것이었다. 휴식형 템플스테이였지만 참가자들이 가장 좋았다고 후기를 남기는 부분이 바로 ‘일감 스님과의 대화’ 코너였다. 일감 스님은 금산사를 찾은 이들에게 ‘인기 짝 스님’이었다.

여기에 힘입어 스님은 2012년부터 휴식형 템플스테이와 토크콘서트를 함께하는 ‘내비뒤 콘서트’를 열었다. 내비뒤 콘서트는 매월 마지막 주 주제를 정해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중간 중간 음악도 듣는 방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스님은 해고노동자, 다문화가족 등을 초청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소외받는 이웃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달인 김병만씨와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감 스님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 불교 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통판차상 (640×400×180mm)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와 전통가구의 정겨움을 담은 수플림 통판차상

100% 국내제작

소나무 원목을 사용하여 전통가구 장인이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한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나뭇결의 아름다운 문양이 살아 숨 쉬는 고급스러운 차상입니다.

- 늘 곁에 두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담한 크기
-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소나무 나뭇결 문양
- 낙동법을 사용한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하여 튼튼한 내구성 보장

일감계좌: 농협 121078-56-121535 (류정애) 정가 150,000원 · 할인가 90,000원

수플림 숯침대(주) www.suplimbed.co.kr

친질상담 · 주문전화 ▶ 080-999-1080